

LS니꼬동제련 민성기 전무 승진

LS그룹은 12월10일 계열사인 LS전선, LS니꼬동제련, 가온전선 등 3개 계열사 이사회를 열어 임원인사를 단행했다.

LS전선은 임철현, 이광원, 도석구 이사를 상무로 승진시키고, 류춘길, 조남제 부장을 이사로 발령했다. 이와 함께 정보통신 부품·소재사업 강화를 위해 최동진 전 LG전자 상무를 영입했다.

LS니꼬동제련은 민성기 상무와 김명한 부장을 각각 전무와 이사로 신규 선임했고, 가온전선은 김성은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켰다.

<화학저널 2005/12/13>